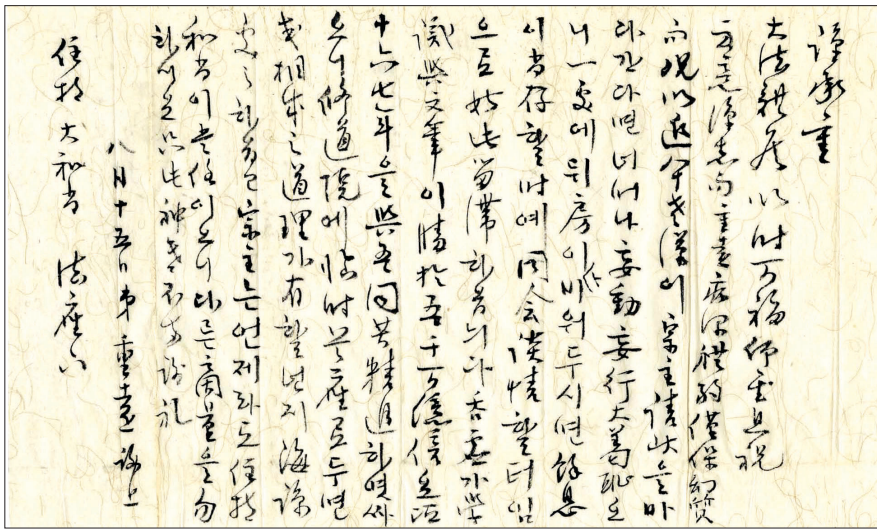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4)

“80세 노인 宗杲는 수치지요”



경봉 스님에게 보낸 답신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2)

삼가 서찰을 받고서 법체(法體)가 항상 만복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러러 위안이 되고 송축합니다. 통도사 종주(宗主, 조설)로 와달라고 하신 뜻은 잘 알았습니다만 나는 병이 깊고 몸은 약하여 겨우 허명할 몸을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팔십에 가까운 늙은 사람이 종주(宗主)로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망령된 행동이고 큰 수치입니다. 뒷방이나 한 곳 비워 두시면, 남은 목숨이 있을 때에 함께 모여 정담(淸談)이나 나눌 터이니, 우선은 이곳(상원사)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탄허(呑虛)가 학식과 문필이 나보다 천만 억 배나 더 뛰어나고, 또 167년 간 나와 함께 고생하며 정진하셨사오니, 수도원에 입사로 수좌(首座)로 두면, 혹 서로 도움이 될 듯도 합니다. 해량(海藏)하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주(宗主)는 언제라도 주지화상(住持)이 마땅히 말아야 하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흐려 이만 줄이옵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제(弟) 증원은 답서를 올립니다.

이 편지는 한암선사(漢岩禪師)께서 경봉(鏡峰)스님에게 보낸 편지로 1949년 8월 1일에 보낸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당시(1949년) 통도사 주지로 있는 경봉스님께서 통도사에 해동수도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한암스님을 종주(宗主)로 모시고자 청했다. 실제 당시 통도사에 해동수도원이 설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80에 가까운 나이로 통도사 종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망령된 행동이고 큰 수치라는 말로



극구 사양하고 있다. 뒷방이나 한 칸 비워 두면 영생을 함께 모여 정담(淸談)이나 나누면서 지내자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옛 큰스님들은 조실 자리도 한사코 사양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알 수 없다.

한암선사는 그 대신 내 제자 탄허(呑虛)가 학식과 문필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 수도원의 수좌(首座, 조실 다음 직책)로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제자 탄허스님을 추천하고 있는데, 제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깊다. 당시 한암선사의 연세(年歲)는 열반(1951년)하기 2년 전으로 74세였고, 경봉스님(1892~1982)은 58세였고, 탄허스님(1913~1983)은 37세였다.

이 편지에는 연도가 없다. 그러나 경봉선사 일기를 고증한 결과 1949년임이 밝혀졌다. 한암선사는 경봉선사보다 16세 연장(年長)임에도 불구하고 '사제(舍弟, 師弟)'라고 낮추어 말하고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989호 제목 중 “절친한 도반...”을 “제자의 도반...”으로 수정합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 주었으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2013년 4월 28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기부문화가 탄생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 좋은날이 제정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그것이다. 캠페인은 모금과 기부의 방법이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것으로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새로운 체계의 캠페인은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자비’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실천하기 위한 고민에서 탄생했다. 그 고민의 주인공은 캠페인을 주관하는 날마다 좋은날의 이사장이자 캠페인을 주관하는 조계종중앙신도회의 이기흥(59) 회장이다.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그로 인해 포교의 마당을 넓힌 그의 이야기다.

절에서 살아난 소년

4월 21일 신도회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바쁘게 살아왔을까. 왠지 웃음도 바빠 보였고, 앉아 있는 모습까지도 바빠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많은 직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이 회장의 삶은 어찌 보면 남들보다 좀 더 바쁘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어린 시절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어느 날 장티푸스를 앓게 된다. 상황은 심각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고, 백약이 무효였다. 피지도 못한 꽃이었다. 절망의 순간, 이 회장의 어머니는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웃들로부터 절에 한 번 가볼 것을 권유받는다. 이 회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 논산의 작은 암자로 간다.

“절에서 이들을 지냈어요. 지금 생각하니 스님이 구병시식(救病施食)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죽어가던 소년 이기흥은 이를 동안 절에 머물고 나서 살아난다. 기억이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초등학교 이기흥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는 학교 길에 암자에 들려 놀기도 하고, 법당에서 숙제도 했다. 그리고 가끔 스님이 주시는 떡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회장에게 ‘불교’는 그렇게



이기흥 회장은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시작했다. 암자의 마당에서 뛰어 놀고, 법당에 앉아 숙제를 하고, 절에서 만든 떡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립학교인 대전의 보문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중립학교에 다니게 된 그는 배정된 교과시간을 통해 불교 교리를 배우고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군에서도 군종병으로 복무한다. 이 회장은 입대 당시 약국에 배속됐는데, 어느 날 군중으로 차출되었다고 한다. 훗날 이 회장은 결혼식도 동학사에서 한다. 그는 극적으로 살아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늘 불가의 울타리에서 살아 온 것 같다고 회고했다.

초교 4년, 장티푸스로 죽을 고비

암자 찾아 구병시식으로 넘겨

중고교 중립학교 졸업, 군종병 복무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설립

기업인, 체육인 화려한 이력

‘체육인불자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

‘스포츠 포교’의 새로운 장 열어

2012년 중앙신도회 25대 회장 취임

새로운 기부문화 ‘행복바라미’ 제정

오래 전에 뿌린 씨, ‘행복바라미’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이 회장의 ‘행복바라미’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천하고 있었다.

“불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다고 진정한 불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한 줄이라도

도 실천하는 이가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기업인으로 성공한다.

기업인으로서 꿈을 이룬 그는 2004년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하 나눔재단)’을 설립한다. 나눔재단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주)신창산업개발, 흥국산업(주)의 임직원들과 자신이 회사 차원에서 해 오던 사회봉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했다. 그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기업인으로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라는 생각에서 나눔재단을 시작했다고 한다. 설립 당시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아산병원에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나눔재단은 시작됐다.

학자금 지원, 의료 지원, 푸드 지원, 해외 지원, 행복 지원, 봉사활동, ‘서당상’ 시상 등 여러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재단은 독특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또 다른 상황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학생들에게 학창시절 남을 돕는 일에 보람과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2013년 4월 28일 탄생한 이기흥표 ‘행복바라미’는 이미 오래 전에 뿌린 씨가 자라난 것이다.

새로운 포교 ‘스포츠 포교’

이 회장이 불교계에 정식으로 발을 디딘 것은 2007년이다. 10월 18일 불자 체육인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스포츠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서 이 회장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다.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 ‘대한가누연맹 회장’, ‘대한수영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모두 이 회장의 이름 뒤에 따라 붙는 직함들이다. 직함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면서 체육인이다. 체육인으로서의 이력 역시 화려한 그는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비롯해 네 번의 올림픽과 두 번의 아시안 게임에 임원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참여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2005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의 원력과 지원으로 시작됐다. 새로운 포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있었던 법장 스님은 성공한 기



2007년 런던올림픽선수단환영식에서 선수단과 기념촬영



2013년 행복바라미캠페인 선포식



(사) 대한불교 승가종

중정월인

원로원장 **혜공**
재무원장 **무착**

종회의장 **혜륜**
포교원장 **도안**

총무원장 **법수**
총무부장 **도일**

범음범패교육원장 **법수**
비구니범음교육원장 **법관**
월인문도회문장 **법종**

승가종법사대학장 **원해**
승가종총본산승가사주지 **선견**

서울총무원장 **정행** 부산총무원장 **봉산** 대구경북총무원장 **지운**
대전총무원장 **법지** 울산총무원장 **도성** 경남총무원장 **월곡**
강원총무원장 **부루나** 전남총무원장 **선궁** 종도일동



(사)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법수

■ 총무원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번지 ■ 전화 051)552-8554, 556-0278~9 / 팩스 051)556-8551

업인으로서, 체육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 새로운 포교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이 회장은 법장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회장은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홍보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16개 시도지부를 만들고, 불자 체육인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촌 선수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불자 체육인을 지원하고, 회원 간 단합과 화합 도모, 각종 불자선수들과의 유대 및 연대활동 등을 펼쳐나갔으며, 태릉선수촌에 법당을 세우는 등 체육인들을 위한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체육인불자'라는 인프라를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넓혀나갔다. 현재 30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체육인불자연합회의 창립은 '스포츠 포교'라는 또 다른 포교의 확장이었다. 안타깝게도 원력을 세웠던 법장 스님은 연합회의 창립을 보지 못하고 원적에 드셨다.

새로운 포교의 앞줄에 서게 된 그의 노고와 능력은 '2008년 포교대상' 과 '2011년 불자대상' 수상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실천하는 회장 되고 싶어”

“중앙신도회는 불교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고, 교구신도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신도회가 종단과 불교의 중심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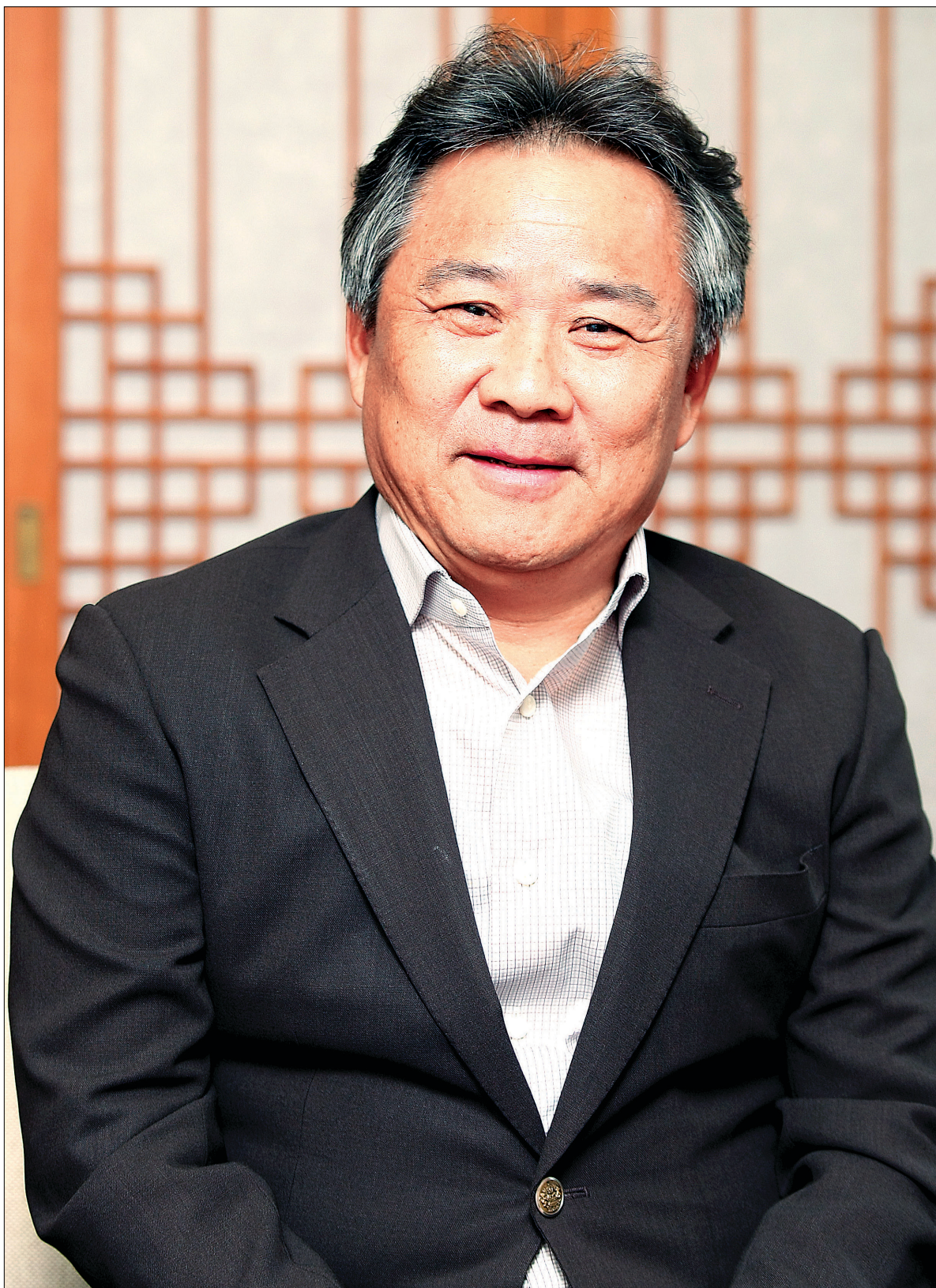
2012년 10월 13일 이 회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25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이끌며 포교 역량과 실행력을 넓혀 온 그는 2009년부터 조계종중앙신도회의 부회장으로 일해 왔고, 마침내 포교와 실행의 중추인 조계종신도회를 이끌게 됐다.

“신도회가, 신도회장이 해야 할 일은 ‘장(場)’을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그는 중앙신도회의 존재 이유부터 고민했다. 왜 있어야 할까, 신도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그는 신도들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도들의 역량을 ‘결집’ 시키는 역할이 신도회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결집된 신도들의 역량으로 종단과 불법(佛法)을 의호하고, 불법의 실천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신도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미디어, 봉사, 복지, 전통문화, 노동, 인권, 환경, 남북, 여성 청소년 등 15개 분야에서 400여 명에 이르는 재가불자 전문가들이 임원진으로 참여하는 상설위원회를 만든다. 조직화를 통해 불자들과 ‘불교’의 대사회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다. 그리고 더불어 내 부 조직도 정비했다. 교구신도회와 직능별 신도단체, NGO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했다. 그렇게 신도회 인맥을 정비한 그는 신도회의 출발점인 ‘결집’ 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실천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행복바라미’이다. 결국 ‘행복바라미’는 이기홍 회장의 포교역량과 실행력의 집약체로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실천인 것이다.

기부문화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며 관심을 모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기간 동안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모금과 기부 방법이 다른 것들과 다르다. 우선 디지털 기부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에 설치된 모금함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다. 모금과 기부의 운영 형태도 기존의 다른 모금운동과 다르다. 모금과 기부가 바로 모금 현장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수혜자의 선정도 모금이 이루어진 해당 지역의 주체에서 선정하고 있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각 지역에서 모금과 기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물품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해당 지역의



이기홍 회장은 ... (주)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주)신창산업개발과 흥국산업(주) 회장이자.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 대한카누연맹 회장, 대한 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04년 ‘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 문화재단’을 설립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취임해 스포츠 포교라는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에 여러 차례 임원진으로 참여 했으며, 2009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2010년부터 대한수영연맹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대한불교조계종 불교포럼 공동대표와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2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3년부터는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2008년과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과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주체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모금과 기부의 집행력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캠페인은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등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3년 첫 모금행사에서는 총 1억 1800여 만 원이 모금됐으며, 209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로 2회 째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 회장은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캠페인은 더욱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연등축제를 앞두고 열리는 문화축제를 세계의 우수한 문화축제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중앙신도회는 “(사)날마다좋은날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물 사건으로 인한 전 국민적 슬픔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치유되기를 바란다.”며 “사회공

헌을 위한 전통문화 계승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준비했던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전국 모금캠페인 포함)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취임 3년 차를 맞고 있는 이 회장은 “내년부터는 캠페인에 ‘마케팅’을 도입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캠페인을 펼치겠다.”며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축사만 하는 회장이 아닌 일하는 회장이 되고 싶다.”고 했던 소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어린 시절 불가의 인연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된 그는 자연스럽게 불가의 울타리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anholl@hyunbul.com

전법일기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청정도량’

대한민국 국군에 군목(軍牧)과 군 신부는 있어도 군승(軍僧)은 없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군포교의 암흑기라 부를 수 있는 1968년까지다. 이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는 군승이 파송되지 않았다. 불교가 우리나라 최대 종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누가 보아도 불평등한 일이었다.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며 구호품을 교회회를 통해 배급했다. 해방 후 민간구호품은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모은 것들이었으며, 이 구호품을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분배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난이 핑계였는가? 당시 구호품을 받기 위해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불자들이 적지 않았다. 스님으로서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팠다. 우리 불교가 그만큼 그 기능을 못했

다. 그 격문은 지금 읽어도 가슴이 뭉클하다. ‘사부대중에게 고하노라! 부처님은 살상을 금하여 미친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데 잔악한 왜구가 이 땅에 범람해 국왕이 몽진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제 불력과 법력이 아니면 구제할 수 없게 됐다. 나라와 중생이 있지 않고는 우리 불교도 있을 수 없다. 비록 조선왕조가 우리 불교의 씨를 말리려 철저히 박해했다 한들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청정도량이다.’

임진왜란 당시 휴정 스님의 격문을 보며 나는 군포교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다. 임진왜란 당시 칼을 든 스님들은 당시 신들이 지옥을 가는 대신 후대의 스님들과 대중들이 성불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해 거 참없이 자신을 내던졌다. 그들은 불살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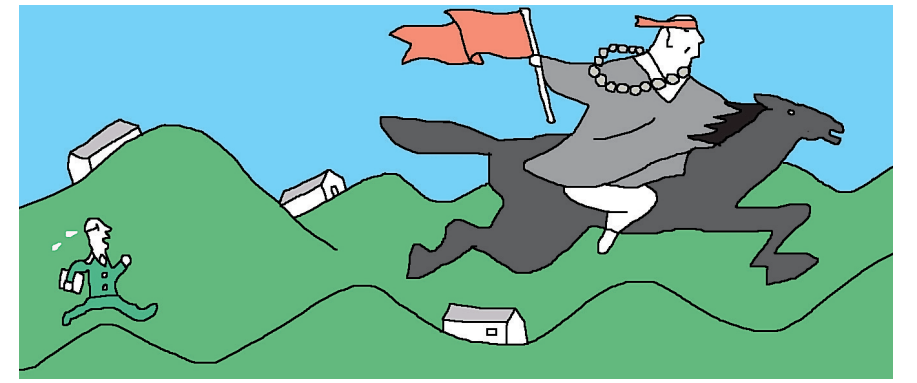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군 요직에도 기독교계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당연히 군대에는 목사와 신부만이 장교로 임용돼 포교를 독점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큰 스님들이 나섰다. 1960년대 초 경산 스님, 송산 스님, 혜정 스님 등이 여러 방면에서 애를 써 마침내 군대에 스님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게 됐다. 그때 마침 시기적으로도 베트남 파병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은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승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승제도가 도입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독교계에서는 반발했다. 여기에 불교계에서는 스님이 장교가 돼 군대에 가면 장가를 가지 않겠느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자들의 원력으로 1968년 마침내 군승제도가 현실화됐다. 힘들건 어렵건 군승은 각 부대로 파견돼 포교활동에 나섰다. 그런 중 나는 은사 경산 스님의 명을 받아 군승으로 입대했다. 처음에는 스승의 명이니 거역할 수도 없고 이것저것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했을 뿐이었다. 그때 은사 스님께서 는 나에게 휴정 스님의 격문을 보여주셨

이라는 계율을 뒤로 칼을 높이 들고 중생 구제라는 더 큰 법을 따른 것이었다.

나는 군승제도가 실시된지 2년 후인 1970년 3기로 임관하였다. 이어 1972년 2월 십자성부대 군승으로 이듬해 4월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베트남에서 장병 포교와 현지인들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불모지나 다음 없었던 군포교 현장에서 군승으로 복무하는 내내 나는 휴정 스님의 격문을 떠올렸다. 군대에 있다보면 다른 스님들처럼 선량 안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군대상황이 겹치면 예불을 지킬 새도 없다. 매일 장병들에게 들려줄 법문과 법회 준비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환경 때문에 스님으로서의 의식을 완전히 치르지 못했지만 어떤 수행자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며 실천해야 하는 곳이기도 어찌가 무거웠다. 군승으로 복무하는 것은 수많은 스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랑 스님 (前 군중교구장 · 용인 반이산원 주지)

동

-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 기원 -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 기념대법회

축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은 석가세존의 해명 아래 평화와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종, 문화, 종교, 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한편, 지구촌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협력으로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세계불교도관의 친선도모는 물론 문화교류를 통하여 불교포교 및 세계평화와 자비사상에 기여하며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통일에 이바지 할것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기2558(2014)년 3월 25일자로 경기도 지사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사단법인 세계 불교 연합 법 왕 청

이사장 청운 박청운

((사)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중정, 일불신문사 수석부회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상임이사겸 사무총장 이 붕 서 병 열

(일불신문사 발행인 겸 회장,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지회장, (교단)일불교 이사장, 대한세정신문사 발행인 겸 회장)

- 설립 기념대법회 일시 및 장소 -

주최 : 동행사동행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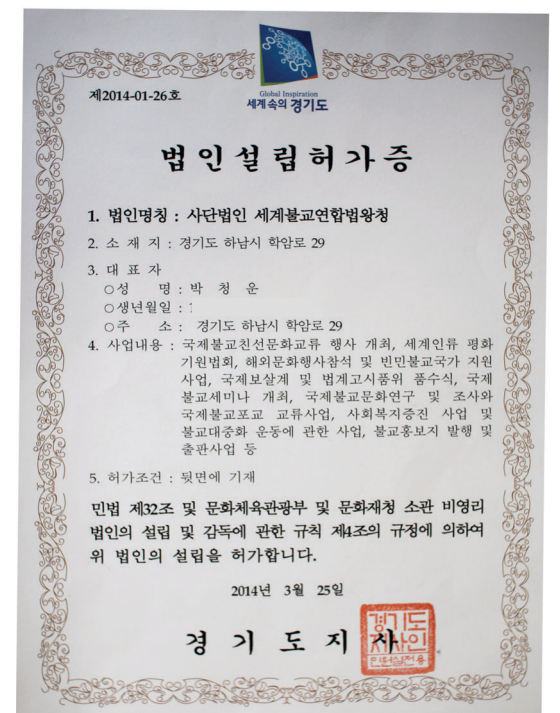
주관 :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

일시 : 불기2558(2014)년 5월23일

(음력4월25일) 금요일 오전11시

장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2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법인사무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 (청운사)

서울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1 헤명빌딩6층 전관

전화 : (02)3401-9325, 010-6253-4936 전송 : (02)774-1487